

경제

2012 새해에는 8 김일평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천 정비로 영산강 사업 극대화”

“영산강 사업의 성과를 배가하기 위해 영산강과 합류하는 지천·고막원천 등 지천살리기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일평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최근 나주 영산강사업 홍보관에서 “지역민들의 관심과 협조로 영산강살리기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습터와 편이 시설을 더 확충해 영산강을 지역민들이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특히 “영산강 사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영산강과 합류하는 지천도 함께 관리돼야 한다”며 “올해 지천살리기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영산강과 연결된 국가 지류하천인 지석천과 고막원천 정비에 나선다.

지석천은 총 사업비 1156억원을 투입해 나주시 금천면에서 화순군 춘양면에 이르는 총 34km 구간을 정비한다. 5개 공구로 나눠 제방보강과 생태하천·자연거길·탐방로 조성, 경작지 정리 등의 사업을 벌인다.

고막원천 22.3km도 718억원을 들여 습지·구하도 복원 등을 추진한다. 또 광주 수완지구와 운남지구를 가로지르는 풍영정천과 탐진



예산 8586억 상반기 집행 지역업체 공동참여 확대

강(27.5km)도 정비한다.

특히 영산강 수질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인 광주천에는 주암댐의 원수를 공급해 수량을 늘릴 계획이다. 여기에 오는 3월 광주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영산강 수질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의 역사·문화를 반영한 고향의 강 사업에 74억원을 투입하고, 인근 하천의 유량을 건전화된 도심하천에 공급하는 물순환형 하천사업도 전개한다.

김 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조기 집행과 지역업체 공동참여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그는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4%인 8586억원을 조기집행하고, 신규사업 발주 때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율을 현행 35%에서 40% 이상 유지해 지역 건설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익산국도청은 올해 1조3415억원을 투입해 호남권 간선도로망 확충과 친환경하천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여수엑스포와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새만금 지원사업 등 국책사업 지원에 24건 3306억원을 사용한다. 또 도심부 교통혼잡 해결을 위해 화순~광주 도로와 전주, 익산, 정읍, 김제, 나주, 광양 등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선 사업에도 총 16개 사업 1548억원을 집행한다.

김 청장은 “익산국도청은 호남 지역의 도로·하천 등 국토 전반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라며 “발주 청이라는 우월적 자세보다는 민원인·시공사·감리단을 동반자로 인식해 함께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목기자 jwpark@kwangju.co.kr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광주신세계 외국인 고객 2배 늘어

중 관광객 3배 급증...명품·화장품 등 주로 구매

지난해 광주신세계(대표 조창현)를 찾은 외국인 고객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광주신세계는 올해도 광주전남에서 열리는 비엔날레, 여수엑스포, F1그랑프리 등을 마케팅으로 연계하기 위해 통역서비스 요원 배치,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모시기에 나설 계획이다.

16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2011년 광주신세계를 내점한 외국인 관광객의 총 구매 건수는 550여건으로 전년도 250여건보다 2.2배, 매출은 전년도 2.5배(텍스리펀드: 외국인대상

세금환급 기준)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외국인 방문 고객의 국적도 기존의 중국, 일본, 몽골 등 아시아 국가에서 유럽, 호주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광주시의 국제 비엔날레, 광주 도시 정상회의의 전담도의 F1그랑프리 등 국제행사의 인지도가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구매가 크게 늘었다. 2010년 90여건이던 중국인 구매 건수는 2011년 280여건으로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구입한 품목은 루이비통, 페라가모 등 명품이었으며 2위는 SK II 등 고가 화장품이 차지했다. 3위는 알도 김 등 지역특산물인 인기를 끌었으며 고가 청바지 등 여성의류와 아동관련 상품도 외국인들의 주머니를 열게 만들었다.

광주신세계는 특히 올 해 광주·전남에서 비엔날레, 여수엑스포 등 국제행사가 많아 이를 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신세계는 지난 12월 한국관광공사가 인증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우수쇼핑점

인증’에 이름을 올려 관광공사 해외지사 대표 사이트를 통해 충분한 광고효과를 거둬 외국인 고객 모시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오는 22일~28일까지 중국 최대의 명절 ‘춘절’을 맞아 광주·전남권을 찾는 중국인 고객들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통역서비스를 비롯해 편의시설, 중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와 상품 물량 충원 등에 정성을 들이고 있다.

조창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지역 현지 기업으로서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올해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 광주 비엔날레 등 국제적 행사에 발맞춰 외국인 고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성로원 KJB사랑센터 7호점 선지 KJB 광주은행 일 시: 2012.1.16(월)

‘KJB 사랑센터’ 7호 소태동 ‘이일성로원’

KJB광주은행은 설을 맞아 16일 오후 동구 소태동 소재 노인복지시설인 ‘이일성로원(원장 손문권)’에서 송기진 은행장과 광은리더스클럽중앙회, 김홍균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JB 사랑센터 7호점’ 선지식과 후원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광주은행과 광은리더스클럽(회장 김홍균)은 ‘사랑센터 7호점’ 선지를 기념해 각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선금을 함께 전달했다. /\*최재호기자 lion@

하이트진로, 지역 사랑기금 1850만원

공동모금회 전달

하이트진로 주식회사(대표 이남수)는 16일 오후 광주광역시에서 강은재 시장, 최현주 광주사회복지기금공동모금회 회장, 성동욱 하이트진로(주) 광주지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10월~12월에 조성된 ‘광주전남사랑기금’ 8차 조성금 1842만1560원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하이트진로(주)는 참이슬 ‘情 나눔 지역사랑 캠페인’ 일환으로 지난 2010년 1월부터 광주전남지역에서 판매되는 참이슬 1병당 2원씩 기금을 출연해 조성 목표액 2억원 달성까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7차에 걸쳐 조성된 성금 1억2391만4400원을 기탁했다.

8차(2010년 1월~2011년 12월)에 걸쳐 조성된 누적 기탁금 1억4233만5960원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돼 우리지역 결식아동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이트진로(주)광주지점은 사랑기금 2억원 조성, 진로



情 나눔 참이슬 봉사단 운영, 광주천 가꾸기 사업참여, 우수고객 사은행사, 소비자 초청 영화시사회 등 ‘情 나눔 지역사랑 캠페인’을 전개해 지역민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소셜커머스 사기 피해 주의보

공정위 설 앞두고 경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소셜커머스, 상품권, 택배서비스, 제수용품 등 4개 분야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이용시 사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결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 사용할 경우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

하라고 충고했다. 상품권은 업체가 제시한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에 상품권 액면금액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공정위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제수용품으로 농축수산물을 살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물품의 포장·용기에 인쇄된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추적 관리번호를 해당 이력추적 사이트에 입력해보라고 충고했다.

농산물 이력은 www.farm2table.kr, 수산물 이력 www.fishtrace.go.kr, 쇠고기 이력은 www.mtrace.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연필뉴스

새얼굴

“경영컨설팅 등 中企 전폭 지원”

김석준 기업은행 호남본부장



“지역경제의 견인차인 중소기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애써 지원을 하겠습니다.”

최근 기업은행 호남지역본부장으로 부임한 김석준(54) 신임 본부장은 “20여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뿐 아니라 경영컨설팅, 기업세비, 해외바이어 발굴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 리딩뱅크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6년 연속 고객만족도 1

위를 차지한 지역본부의 자력으로 개입도도 적극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신임 본부장은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와 전남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1983년 기업은행에 입행해 광주 사무지점장·하남공단 기업금융지점장 등 20여년간 광주지역 영업현장을 누빈 정통 영업맨이다. /\*박정목기자 jwpark@

Advertisement for Hangeukjeada (한국제다) tea products, featuring a large image of tea fields and text promoting traditional food products and tea quality.

Advertisement for Kwangsin University (광신대학교) featuring a 2012-1 Women's New Education (여자신학원) and a 2012-1 Domestic Violence Response (가정폭력상당원) course.